고창군 부안면의 구현마을 사람들이 기획해 시나리오를 짜고 배우로 출연해 만든 극영화 '아홉고개 사람들'이 오는 12일 서울의 롯데시네마 워드타워에서 상영된다.

'아홉고개 사람들' 영화 상영

고창군 부안면 구현마을 사람들 기획… 11일~12일 까지 상영 될 예정

고창군 부안면의 구현마을 사람들이 기획해 시나리오를 짜고 배우로 출연해 만든 극영화 '아홉고개 사람들'이 오는 12일 서울의 롯데시네마 워드타워에서 상영된다.

'아홉고개 사람들'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 주관하는 한국영상문화제전 행사에 특별 초청돼 상영될 예정이다.

'아홉고개 사람들(30분)'은 마을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새롭게 창작했다.

마을 문화사업을 주관한 구현마을의 구현골문화자치회(대표 김연기)가 기획했고, 영화 교육과 제작은 렌즈 테이블의 이상휘, 장성현 감독이 맡아 진행했다.

구현골문화자치회는 지난달 5일 부안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영화의 주인공들인 구현마을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부안면 주민들 등 이웃과 함께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이호근 전라북도의원, 김영환 부안면장 등 100여명과 함께 '아홉고개 사람들'을 발표하는 작은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영화 줄거리는 농촌마을의 한 촌로가 평생 일만 하다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글쓰는 마을 사업에 참여하면서 틀관은 농사만 지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시도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도발적인 태도로 아주 좋은 시("시간 따라 나도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 / 어느덧 팔십고개 내 몸도 굽어지고 / 인생의 가을들녘에 추수 끝난 빈 들판")(이 시는 실제 할아버지의 창작작품이다)를 발표한다.

그러나 갑작스레 찾아 온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과정에서, 그 와중에 옛사랑의 그리움을 떨에게 들키지만 그 부인은 모른 체하는 내용을 담은 마을의 일상 이야기다.

영화 배우로 참여한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우리는 암것도 몰른디…" 하면서도 주저주저하며 영화 촬영에 나서게 되고 또 그러다가도 "진짜로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여?" 하며 되묻곤 했다.

구현만을 주민들은 함께 참여해 만든 영화가 서울에서 상영된다는 소식에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기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네스코 글로벌 네트워크 가입

군산시 정식 회원도시 인증

군산시가 UN 산하 국제교육기구인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인 'UNESCO GNLC 학습도시'에 공식 가입했다.

군산시는 지난달 25일 UNESCO의 UIL(평생교육연구소)로부터 정식 회원도시 가입 증서를 받았다.

이로써 군산시는 평생교육 국제기관 양대 기구인 IAEC(국제교육도시연합)와 UNESCO GNLC에 동시 가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자체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전라북도에서는 최초이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2015년에 설립되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독일 함부르크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28개국 126개의 회원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국제학습도시 간 교류를 통해 전 세계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목표로, 학습도시간 우수사례 공유, 학술출판, 국제세미나 및 세계대회 개최, UN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전 세계 평생교육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UNESCO GNLC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연계 시스템은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 도시'를 목표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군산시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군산=문정곤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하전 어촌 조성 현장 방문

고창군이 어촌자원을 관광화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군수는 지난 9일 올해 조성한 심원면 '하전 어촌 이야기 길' 조성 현장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전북도 어촌관광자원화 공모 시범마을에 선정되어 추진된 '하전 어촌 이야기 길' 조성사업은 3억원을 들여 하전 어촌 마을에 존재하는 갯벌생태계, 문화, 수산물, 생활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스토리텔링과 상징물, 벽화, 포토존, 갯벌전망대 등 볼거리와 들을 거리, 찍을거리 등 어촌에 이야기를 입혀 차별화된 관광·여가 공간을 조성했다.

하전 어촌 이야기 길 조성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 되고, 지역의 독특한 특색을 반영한 관광자원 확충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마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 군수는 이날 해양수산부 갯벌생태자원화 종합계획(2016. 12월 수립)에 시범사업지구(전국 5개지구)로 선정돼 내년부터 추진될 심원면 고전리 일원의 '고창 갯벌생태계 복원지'에도 방문했다.

사업대상지는 습지보호지역 인접 및 람사르 갯벌지역에 건설된 양식장에 의해 갯벌생태계 기능이 훼손된 지역으로 방조제 제거를 통해 모래갯벌, 니질갯벌, 사구 조성으로 우수한 생물다양성을 갖는 갯벌생태계로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차준선 대령, 29대 38전투비행전대장 취임식

지난 9일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이·취임식이 거행됐다.

공군 공중전투사령관 노승환 소장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이·취임식은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 美 8전투비행단장 도지어(Todd A. Dozier) 대령 및 인근부대 한·미 지휘관·참모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이·취임식을 통해 제28대 전대장 이성복 대령(49세, 공사 40기)에 이어 차준선 대령(46세, 공사 41기)이 제29대 38전투비행전대장으로 취임했다. 새로 취임한 제29대 전대장 차준선 대령은 공군 작전사령부 전투계획과장, 공군 제20전투비행단 157 비행대대장 등 주요직위를 거치며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쌓아온 유능한 지휘관이다.

신임 전대장 차준선 대령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제38전투비행

전대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부여된 임무완수와 부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임실군 민방위·비상대비분야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전북도가 주관한 '2016년 민방위·비상대비분야 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100만원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민방위?비상대비업무분야중 기관장 관심도와 국정시책합동평가지표 추진실적(민방위분야 3개 항목, 비상대비분야 2개 항목),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3개 항목)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심민 군수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보다 더 긴밀한 민?관?군?경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처할 있는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그동안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심민 군수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 매분기별 회의 때마다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임실=진홍영 기자

로컬플러스

남원 용남시장 시민대축제 성료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의 단합의 장으로 마련된 용남시장 시민대축제가 지난 9일 오전 11시 용남시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행사는 용남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숨은 끼를 갈고닦은 상인동아리팀의 오프닝 댄스공연을 시작으로 12팀의 노래자랑 참가자들이 멋진 노래실력을 선보이고 지선영, 안동춘등 초대가수의 흥겨운 축하공연과 조선미술사 이경재의 마술공연이 펼쳐져 시장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을 위한 키즈존·전통놀이체험·하나되어 만들기 체험행사와 함께 특화장터와 먹거리 무료제공코너도 준비하여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병철 용남시장 상인회장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변화된 용남시장의 모습을 선보이는 기회가 되었으며 시장상인들과 지역주민의 한마당 축제가 펼쳐져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믿고 찾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경찰 체감안전도 방안 회의

임실경찰서(서장 이후신)에서는 지난 9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각기능 과장 및 계팀장, 지파출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올해 치안성과 결과를 분석하고 체감안전도 향상 방안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는 성과향상을 위한 자체분석과 주민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열띤 토론으로 2017년 새로운 성과목표가 설정되었고 경찰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평가를 조사하는 만큼 쌍방향 소통을 통해 주민공감을 끌어내는 주민 맞춤형 치안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임실경찰서는 2016년 치안만족도 분야는 7등급, 정책홍보 성과지표에서는 6등급 크게 선방하였다.

이후신 경찰서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향상과 주민과의 긴밀한 접촉과 공감을 통한 만족도를 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상가지역 범죄예방 교육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순화파출소(소장 박인규)에서는 지난 8일부터 여성범죄 및 절도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관내 상가지역을 순회하며 범죄예방교육과 함께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등 종합치안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중점으로 각종범죄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대처요령 뿐만아니라 범죄를 목격했을 때 적극 신고해줄 것을 알리고, 특히 여성대상 범죄피해사례와 이에 따른 대처요령 및 4대사회악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경찰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상가지역은 물론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순찰 활동을 여성범죄예방을 위해 여성안심구역 내 방범용CCTV를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인규 소장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예방요령에 대한 주민상대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순화파출소는 관내 순찰활동과 병행하여 범죄예방요령교육을 실시하여 관내에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